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방화를 위한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Article

01

주제어 : 방화, 상징체계, 전통건축, 목조건축

한 동 수 부교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두 다 운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권 준 형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1. 서 언

1-1 연구 경위

건축은 인간이 자연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실내공간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공구축물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목재가 건축의 중심부재였고 오늘날처럼 피뢰침이나 소화기, 스프링클러 등과 같은 과학적인 방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화재는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조선시대에는 방화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설치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기록¹⁾

이 있으나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²⁾ 그러므로 보다 더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수단이 아닌 상징물에 의존하는 우회적인 해결 방법을 추구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건축물의 지역적, 민족적 차이와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심리적인 안전성에 호소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길(吉), 복(福)을 갈구하고 흉(凶), 화(禍)를 방지하는 모든 주술적 상징체계를 통칭해서 압승(壓勝)이라고 한다.³⁾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에 보이는 방화를 위한 상징물 역시 압승이라고 하는 개념의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라

1) 조선시대에는 수성(修城)과 금화(禁火)를 맡아보던 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 : 이후 修城禁火司로 바뀌었고 禁火司라고도 했음)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병조에서 아뢰기를 ‘화재는 조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화재를 금지하는 조건을 뒤에 갖추어 나열합니다. 구화를 하는 사다리 및 물을 저장하는 기구, 급수하는 도구는 공조에서 헤아려 만들어 궁궐내의 각처에 적당한 곳에 나누어 두고 물을 저장하여 번(番)을 든 사약(司○)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여 뜻하지 않은 근심에 대비하고 급수인은 형조에서 정하게 할 것...’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화의 대비책이 기록되어 있다.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한국고전종합DB 1, 2001년, 717쪽)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소금을 금화염(禁火鹽)이라고 불렀다. (萬機要覽 財用編三, 給代, 外方直劃, 민족문화추진회 번역본, 1971년). 그밖에 “근정전이 높아서 만일 화재가 있다면 창출간에 오르기 어려운 것이니 쇠고리를 연쇄하여 처마 아래로 늘어 놓았다가 화재가 있으면 이를 잡고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옥상이 위험하여 불을 잡으려면 자가 미끄러질 경우 잡을 만한 물건이 없으니 역시 긴 쇠고리를 만들어 옥상에 가로 쳐 놓는 것이 어떠한가...선공감에게 명하여 근정전, 경회루, 사정전, 문무루, 인정전, 광연루, 모화관에 사용할 쇠고리를 만들어 바치게 하라.”라고 하는 기록에 보이는 장쇠 역시 방화를 위한 시설이었다. (한녕전실측수리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년, 200쪽)

2) 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하여 수 백칸이 전소되었다는 내용은 많이 보이나 효과적으로 진압했다는 것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張衡○, 『壓勝在中國傳統建築中的運用及意義』, 東亞建築文化國際研討會論文集, 東南大學建築學院, 2004년, 541쪽

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압송의 수단으로 사용된 우리나라 전통건축물의 방화를 위한 상징물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그 유형과 특징을 밝혀 보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그간 한국 전통목조건축에서 방화를 위해 사용해왔던 각종 상징물들에 대해 조사하고, 이것들이 어떤 사상적 배경에 의해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록 한다.

연구방법은 각종 문화재 실측조사 보고서와 실록, 의궤 등 문헌조사를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찾아낸 해당 사례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2. 방화를 위한 상징물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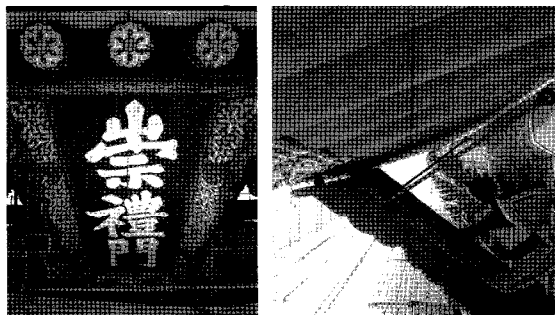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에서 방화를 위해 설치된 상징물은 건축물의 외관 또는 그 주변에 표현된 것과 건축물의 내부 결구 또는 내부공간의 장식부재에 표현된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직접 관찰이 가능한 반면 후자의 경우는 건축물의 해체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직접 확인해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2-1. 건축물의 외부에 표현된 사례

(1) 편액을 이용한 것

이러한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선시대 도읍 한양의 남쪽문인 승례문이다. 풍수지리에서 한양은

조산인 관악산의 화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도시로 보았기 때문에 관악산의 불기운을 누르기 위해 건축물의 편액을 세로로 만들고 승례문이라고 명명했다. 승례문의 승(崇)은 '높인다'는 의미이고 예(禮)는 음양오행 가운데 불[火]을 상징하므로 화염이 위로 솟구치는 상황을 나타내어 이열치열(以熱治熱)의 개념을 사용하여 도시적 차원에서 방화의 상징체계를 만들었다.



[그림 1] . 승례문의 편액(좌)과 결석에 걸려 있는 측면(우)의 모습

(2) 건축물의 주변에 설치된 드무 시설

드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진압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지만 음양오행에서 상극구조인 수극화(水克火)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⁴⁾ 즉, 불[火]과 상극인 물[水]을 청동이나 무쇠로 만든 수조에 담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더구나 동절기에 물이 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조의 하단에 돌을 받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건축물에서는 볼 수 없고 주로 궁궐건축의 주요기능을 담당한 정전과 편전, 또는 침전에 설치되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 “드무”는 “드므”로 표기되어 있으

4) 일반적으로는 화마가 물위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달아나게 하여 화재가 진압되는 장치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음양오행의 상극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2] 궁궐의 각종 드무 : 경복궁 근정전 드무(상) 창덕궁 대조전(중)과 인정전(하)의 드무

(3) 용마루의 양쪽 끝에 장식된 짐승의 형상물은 중국 한

대에는 반우, 진대에는 치미, 당대에는 치문, 명청대에는 이문 또는 문수라고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통일신라시대에는 누미, 조선시대에는 취두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이것은 멀리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고 꼬리를 감추고 위험한 것을 좋아하여 화재를 막는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건축물에 자주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 물고기 꼬리를 모방한 형태로 만들어 올렸으나 점차 변화되어 시대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치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상상의 새인 봉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바다에 살고 있는 짐승이라 하기도 하고, 용의 또 다른 변신이라 하기도 한다. 『광박물지(廣博物志)』를 보면 치미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치(蚩)라는 것은 바다에 살고 있는 짐승이다. 한 무제 때 백량전(柏梁殿)을 짓고 상소하는 자가 있었는데, 치미는 물의 정령이라 능히 화재를 물리칠 수 있으니 당 앞에 설치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치라는 동물은 머리에서부터 꼬리가 용솨아 나와 있으니 이를 따서 치미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영조법식』의 총석편(叢)을 살펴보면 『한기(漢紀)』의 “백량전(柏梁殿)이 화재를 당한 뒤 월(越)의 무당이 말하기를 ‘바다 속에 어규(魚○: 뿔 없는 용)가 있는데 꼬리로 술개(○)처럼 물결을 치니 곧 비가 내렸다.’”고 하니 드디어 그 형상을 지붕에 만들어서 불의재화를 진압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혹 치문(○)이라고 함은 그릇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담빈록(譚賓錄)』의 “동해에 어규가 있으니 꼬리로 술개와 같이 물결을 치니 곧 비가 내려서 드디어 그 형상을 옥척에 베풀었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역시 방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며 그 뜻은 “넓적하게 생긴 독”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무쇠로 만들었지만 입구가 넓은 독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역시 드므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드무라고도 표기한다. 다만 <세종실록>에는 이처럼 물을 담아 두는 그릇을 가리켜 저수지기(貯水之器)라고 표현하고 있다.

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설로는 고대건축(高臺建築)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중국 고대에는 궁궐을 높은 대(高臺) 위에다 지었는데, 피뢰 장치가 없어서 벼락으로 인한 화재가 끊일 날이 없었다. 어떤 술사가 있어 그 대책을 말하기를 “하늘에는 어미성이 있는데 그 형상을 본떠 용마루에 안치하면 불을 막고 재앙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의견을 따라 최초의 치미는 물고기의 꼬리 형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모하여 지금의 치미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고려 시대부터는 중국 당나라 후엽부터 유행한 치문의 영향을 받아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을 뿜어내는 어룡형으로 그 의장이 변형되고, 점차 용두, 취두 등의 새로운 장식 기와로 바뀌면서 전통적인 치미의 형태에서 벗어나 퇴화하였다.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 용두는 별어 또는 만합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등에 봉래산을 지고 바다 속에 있으며 불을 삼키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아무튼 여러 문헌기록학을 종합해 보면 목조건축물에 치미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은 대략 중국 한대에 시작하여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조 건물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화재이다. 옛사람들은 그것이 방화이든 실화이든, 아니면 천재지변이든 간에 불이 자주 나는 것은 화마의 농간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화마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지붕에서도 제일 높은 용마루에 치미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치미는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화재를 막아 건물의 안전을 지켜 주는 수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물인 것이다. 이러한 치미 역시 드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궁궐 건축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의 용마루를 장식하는 부재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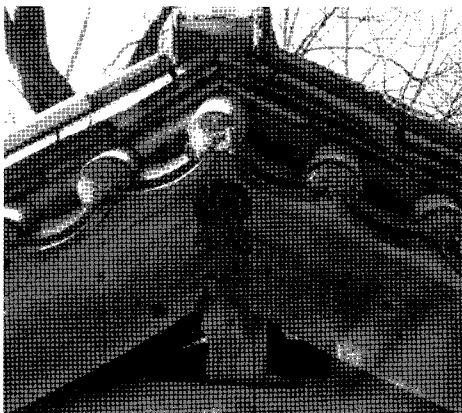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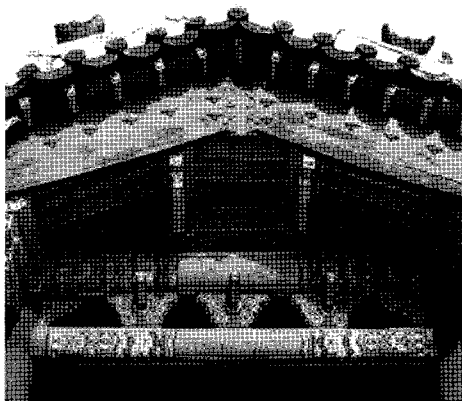
[그림 3] 황룡사지 출토 치미(상), 경복궁 근정전 서쪽 취두(중), 지금성 태화전의 문수(하)

5) 《營造法式》總釋篇 ○尾條：“漢紀栢梁殿災後越巫言海中有魚○尾似○激浪卽降雨遂作其象於屋以厭火祥人或謂之○吻非也., 譚賓錄海有魚○尾似○鼓浪卽降雨遂設象於屋脊.” 이 백량전의 내용은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의 《동란선필(銅蘭涉筆)》에도 보인다.

6) 이익이 쓴 《성호사설(星湖僿說)》 제6권 만물문(萬物門)의 용생구자(龍生九子)에도 이같은 내용이 보이고 있다.

(4) 박공 부분에 사용된 지네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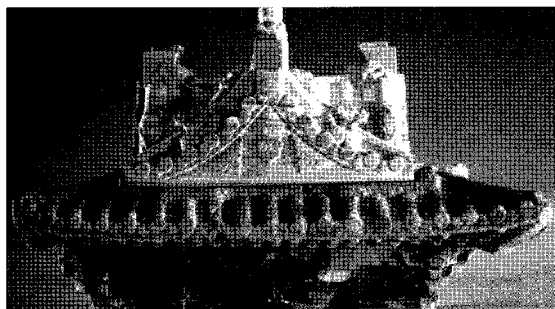
맞배지붕이나 합각지붕은 측면에 삼각형의 부분이 형성되고 이 삼각형 부분을 만들기 위해 판재를 인자(人字) 모양으로 거는데 이를 박공이라 한다. 이 두 개의 박공을 긴밀하게 연결하기 위하여 격식이 높은 집에서는 조각된 얇은 철판을 붙이는데 그 형상이 지네와 유사하여 지네철 또는 오공철(蜈蚣鐵)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지네의 속성을 살펴보면 절지동물의 하나인 지네는 축축한 곳을 좋아하고 야행성의 생활습성을 가지고 있어 역시 물과 관계된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재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을 지네에 빗대어 표현한 것은 방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림 4] 서울 동묘의 지네철(좌)과 옥산서원의 지네철(우)

(5) 박공부분의 현어(懸魚)와 야초(惹草)

『영조법식』에 보면 현어는 수어(垂魚)라고 표현하였는데 “수어는 옥산박풍판(屋山搏風版)이 합첨(合尖)된 밑에 설치하고 야초는 박풍판(搏風板) 밑, 박수(搏水)의 외부에 설치한다.”⁷⁾고 하였다. 여기서 현어 즉, 수어와 야초는 모두 그 속성이 물과 관련된 수생생물로서 방화의 의미를 지닌다. 현어와 야초는 조선시대의 건축에서는 실제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나 경천사지 10층 석탑에서 그 형상을 볼 수 있다.



[그림 5] 경천사지 10층석탑에 표현되어 있는 현어와 야초

2-2. 건축물의 내부에 표현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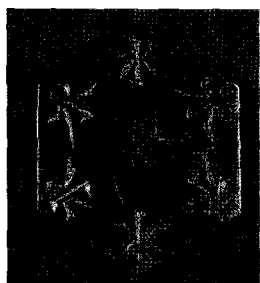
(1) 경복궁 근정전의 방화용 부적

경복궁 근정전 수리 시 상층 종도리 하단의 장여 중앙부(북측면)에서는 상량문과 함께 수자문(水字紋) 은판 5개, 붉은 색 종이 위에 1000여개의 용자(龍字)를 가지고 수자(水字)를 쓴 장지(크기는 38.3x44.5cm), 용그림(크기는 38.3x27cm)이 발견되었다.⁸⁾ (그림 5, 7)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불을 뿜는 용과 수자문이 함께 발견된 것인데 이 역시 수극화(水克火)의 오행상극의 상징체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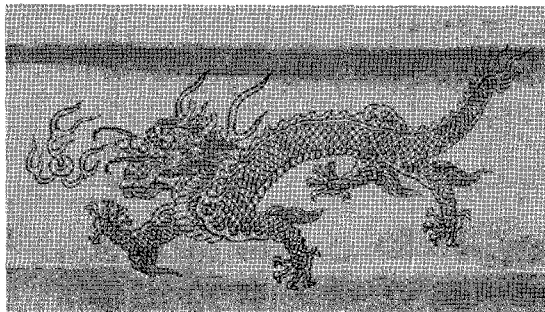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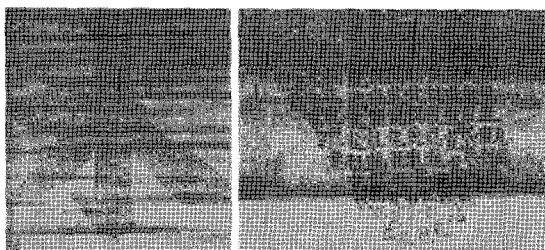
7) 『營造法式』 「小木作制度二篇」垂魚惹草條: “凡垂魚施之於屋山搏風版合尖之下○草施之於搏風版之下搏水之外.”

8) (주)삼성건축사사무소 조사편집,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3년, 84쪽

그리고 근정전에서 발견된 수자은전은 경북궁 근정문과 홍릉 침전 등의 건축물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림 6] 근정전에서 발견된 수자은전 세부(상)와 서로 연결된 모습(하), 이경미 제공



[그림 7] 근정전에서 발견된 수자(수자 : 좌)와 상세(우), 함께 발견된 용그림(하) 이경미 제공

(2) 경운궁 대한문의 방화용 부적

경운궁 대한문 정간 종도리 장여 측면에서도 비닐에 싼 상량문과 함께 수자(水字)가 새겨진 육각형의 부적이

한지에 싸인 채 발견되었다. 그런데 『경운궁영건도감의 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의 품목편(稟目篇) 갑진 3월 25일 내용을 보면 상량식을 거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기록해 두고 있다.

甲辰三月二十五日(갑진삼월이십오일)

(전략)

中和殿御○當欽文閣咸寧殿中和門大漢門 上樑文與草圖書入鑑時及上樑時舉行諸種後錄仰○爲去乎依此昔備如何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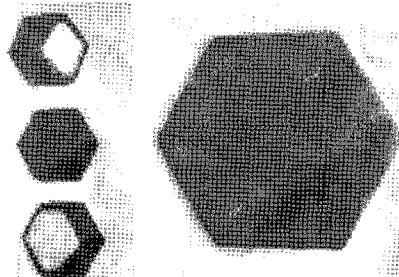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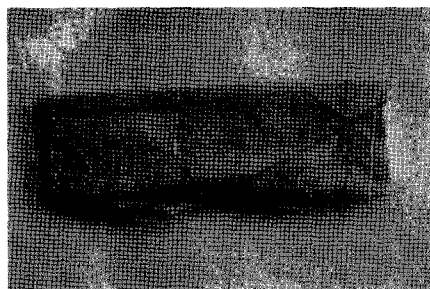
(중화전즉조당흙문각함녕전중화문대한문상량문여초도서입

감시급상량시거행제종후록양품위거호의자조비여하후)

(중략)

水字銀錢三圓:每圓重二錢五分圓作六隅內陽刻水字六¹²⁾

(수자은전삼원:매원중이전오분원작육우내양각수자육)



[그림 8] 대한문에서 발견된 수자은전이 한지에 포장된 모습(상)과 날개의 모습(하)

9) 수자은전 3원 : 각각의 무게는 이전오푼이며 육각으로 만들고, 그 안에 수[水]자 6개를 양각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수자은전삼원(水字銀錢三圓)”으로 상량식 때 수자은전 3개를 대한문 종도리에 넣어두었다고 하여 문헌기록과 실제 출토유물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은판의 명칭이 수자은전이라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어 다른 건축물에서 발견된 것 역시 수자은전으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그림 8)

(3) 조계사 대웅전 종도리 명문

조계사 대웅전의 종도리¹⁰⁾와 장혀가 만나는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목서가 발견되었다.

불기이천구백육십사년정축구월초구일미시(佛紀二千九百六十四年丁丑九月初九日未時)

소화십이년십월십이일하오삼시(昭和十二年十月十二日下午三時)

상량(上樑)

오가유일객(吾家有一客)

래자해도중(來自海島中)

구탄천창수(口呑天漲水)

능살화정신(能殺火精神)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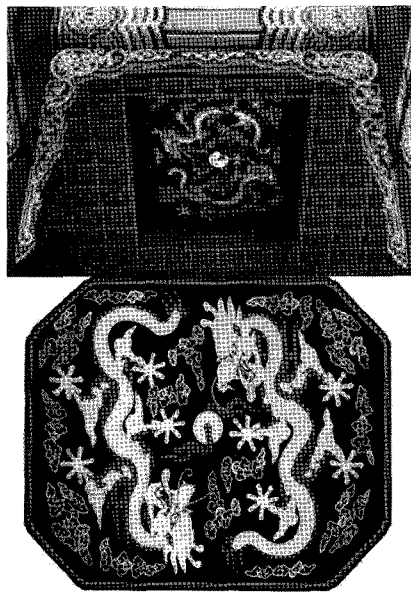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을 머금고 있어서 능히 화마의 신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 상량 이후 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4) 황주 성불사 응진전 평방 하단 명문

황주에 있는 성불사 응진전에서는 마루도리, 받침 장혀 하단, 전면 남측 제1칸의 화반과 제5칸의 도리 하단, 후면 중앙칸 창방 하단 등 여러 개의 목서명이 발견되었다. 그 가운데 응진전 후면 남측 제1칸 평방하단에서 발견된 목서는 목수와 가공일 등을 기록한 다른 목서와 달리 세 줄로 여러 개의 수(水)자를 반복해 씌으로써 방화의 목적이 분명한 목서임을 알 수 있다.¹²⁾

(5) 경복궁 근정전의 조정(藻井)

궁궐건축에서 가장 중심인 정전의 여좌 앞쪽 천정 상부를 보면 쌍룡 또는 봉황이 조각된 말각조정(抹角藻井)



[그림 9] 경복궁 근정전 여좌 앞쪽 천정에 만들어진 말각조정의 쌍룡회주 조각

10) 해체된 종도리는 길이 488cm, 폭 36cm이다.

11_ 불기 2964년 정축 9월 9일 미시, 소화 12년(1937년) 10월 12일 오후 3시 상량,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 계시는데 바다 가운데 있는 섬에서 오셨으며 하늘을 덮을 만큼의 물을 입에 머금고 계셔서 능히 화마의 신을 물리치신다.(조선건축사무소 조사편집, 『조계사 대웅전 해체 실측 수리보고서』, 2006년, 74-75쪽)

12) 신영훈 편, 한국고건축상량기문집, 고미술동인회, 1964년, 183-184쪽, 사진자료는 구하지 못하였고 책자에 옮겨 놓은 내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13) 『營造法式』總釋篇 闢八藻井條: “風俗通義殿象東井形刻作荷菱菱水物也所 以厭火沈約宋書殿屋之爲○泉方井兼荷華者以厭火祥(今以四方造者謂之闢四)”

이 설치되어 있다. 조정은 환천(○泉), 방정(方井)이라고도 하는데 『영조법식』의 총석편¹³⁾에는 『풍속통의(風俗通義)』의 “전당은 동정(東井)을 본떠서 연꽃과 마름의 형상을 조각하였다. 마름은 물속의 물건이니 화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과 심약(沈約)의 『송서(宋書)』에 보이는 “전옥(殿屋)에 환천방정(○泉方井)을 만들고 연꽃을 곁한 것은 화재를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조정이 방재와 관련된 또 다른 상징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우리나라 전통목조건축에서 방화를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상징물들은 크게 실외에 사용된 것과 실내에 사용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외에는 편액에서부터 드무, 치미 등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방화를 위한 상징물이 사용되었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도 있으나 실내에 사용된 방화를 위한 상징물은 주로 음양오행의 원리를 원용한 수극화(水克火)의 개념이 두드러진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징물의 대부분은 축부나 기단부가 아

닌 지붕부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지붕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최근 승례문 화재 이후 전통목조건축물에 대한 방화시설에 대한 정비내지는 시스템 구축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건축물의 화재라고 하는 것이 시설과 시스템의 구축으로 완벽해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귀착됨을 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알려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선조들이 건축물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과 그 일면으로 표출된 방화를 상징성을 살펴봄으로써 방재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전통건축의 방화에 관한 상징체계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증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건축물의 실측조사 시 부재의 치수와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료의 수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 이 글은 2008년 5월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여 논문집에 수록되었던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 문헌

1. 『營造法式』
2. 『경운궁영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
3. 신영훈편, 한국고건축상량기문집, 고미술동인회, 1964년
4. 삼성건축사사무소 조사면집, 근정전 보수공사 및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3년
5. 조선건축사사무소 『조계사 대웅전 해체 실측 수리보고서』, 2006년